

勞 動 經 濟 論 集  
 第40卷 第3號, 2017. 9. pp.79~104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 행복의 분석적 개념과 측정방법\*

조 동 훈\*\*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분석되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기존문헌 고찰을 통해 정리해 보았다. 행복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주관적 웰빙이라는 분석적 개념의 틀에서 정리하였고 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들, 즉 삶에 대한 평가와 감정 그리고 유테모니아의 개념을 상세히 정의하였다. 또한, 주관적 웰빙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여섯 가지 항목들과 이를 기초로 사용된 대표적인 설문문항들을 국문과 영문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이와 더불어 행복수준을 결정하는 경제적 요인 가운데 소득과 행복수준 그리고 실업과 행복수준에 대한 기존연구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행복에 대한 분석적 개념이 향후 경제학자가 행복 연구를 실증 분석하는 데 유용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주관적 웰빙, 행복, 삶의 질

### I. 서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라는 것에 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효용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의 크기이며 이

논문 접수일: 2017년 7월 25일, 논문 수정일: 2017년 9월 2일, 논문 게재확정일: 2017년 9월 11일

\* 본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3926989). 본 연구에 영감을 주신 한림대학교 '행복연구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한림대학교 경영대학 경제학과 (hooncho@hallym.ac.kr)

는 개인의 행복수준과 거의 대동소이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경제학은 인간이 주어진 제약조건에서 다양한 선택을 통한 효용의 극대화 행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최근 들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흥미로운 주제로 부각된 행복 연구는 근본적으로는 경제학의 근간이 되는 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개인의 행복과 관련된 연구는 지난 30여 년간 심리학이나 사회학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경제학은 최근 들어서야 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경제학이 개인의 재화나 서비스 소비와 같은 물질적인 소비행태를 통한 개인의 서수적 효용(ordinal utility)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심리학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인의 행복수준을 몇 개의 개별지표나 혹은 하나의 인덱스로 기수화하여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경제학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가격 변화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중점을 두어 왔기에 매우 제한적인 관점에서 행복이라는 현상 혹은 목적을 다루어 왔다. 이와는 반대로 심리학 혹은 사회학에서는 행복의 개념부터 차분히 정리해 왔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있어서 경제적인 요인들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예를 들어 개인의 심리상태 혹은 환경적·제도적 요인들을 고려한, 풍부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이런 접근방법의 차이로 인해 경제학은 패널 분석을 포함한 회귀분석의 계량방법을 통해서 행복의 결정요인 분석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매우 복잡한 현상에 의해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행해지는 피상적인 행복 결정요인 분석은 매우 건조한 결과만을 양산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본 연구는 기존의 경제학자가 행복연구 분야를 시작함에 있어 행복의 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최소한이지만 유용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연구자가 실증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이용하는데, 이에 대한 분석적 개념(analytical concept)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심리학자가 다루어온 행복에 관한 개념을 분석적으로 정리하고 ‘대체적’으로 합의된(여전히 논쟁의 소지는 있으나) 행복수준의 측정방법과 이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설문문항 그리고 참고문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학문에서, 특히 경제학에서 접근하는 행복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바이다.

## II. 주관적 웰빙의 개념과 구성요소

본 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연구자가 사용하는 분석적 개념인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의 의미를 토대로 설명하고자 한다.<sup>1)</sup> 먼저 ‘주관적(subjective)’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는 개인적인 판단 혹은 느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사람이 매달 수입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나 이 동일한 200만 원이라는 객관적(objective) 수입이 두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삶의 만족도(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후 전개될 것임)는 상이할 것이다. 각 개인의 성격 혹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따라 객관적인 정보나 사실은 개인마다 다른 만족도 혹은 평가를 하게 되며 이는 매우 주관적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의 삶의 만족도 혹은 웰빙은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하더라도 그 최종 결과는 주관적인 판단을 기초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과 웰빙(well-being)이라는 개념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주관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개념의 모호성과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주관적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웰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에선 다소의 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웰빙의 개념은 주관적인 부분과 객관적인 부분을 모두 통합하는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OECD, 2011). 주관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개인의 웰빙을 결정하는 영역(domains)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주관적 웰빙의 포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Diener, 2006). 주관적 웰빙의 정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좋은 감정(positive affect)과 나쁜 감정(negative affect)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평가(evaluations)를 포함하고 있다.”

1) 일반적으로 행복과 주관적 웰빙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주로 행복은 삶의 질과 관련되어 경제학에서 사용되며 주관적 웰빙은 심리학에서 접근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 접근의 유용성 측면에서 주관적 웰빙의 개념을 주로 사용하고 경제학에서 분석한 논문을 정리하는 경우 행복이라는 개념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혹자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주관적 웰빙의 구성요소의 하나인 삶의 만족도 혹은 삶에 대한 평가의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삶의 만족도와 직업 만족도와 같은 인지적 평가(cognitive evaluations) 이외에도 개인적 관심과 공동체 참여 그리고 기쁨과 슬픔 등 삶에 대한 정서적 반응(affective reactions) 등을 포함하고 있다.<sup>2)</sup>

앞에서 정의한 주관적 웰빙의 개념은 사람들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과정을 정의해 주고 있다. 이를 내용적으로 아래 세 가지 요소들로 대략 살펴 볼 수 있다.

- (1) 삶에 대한 평가(life evaluation): 개인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지적 평가 혹은 만족도
- (2) 감정 혹은 정서(affect): 어느 특정 시점에서 측정된 사람의 감정 혹은 느낌
- (3) 유데모니아(eudaimonia): 삶의 목적과 의미 혹은 심리적으로 좋은 기능

## 1. 삶에 대한 평가(life evaluation)

삶에 대한 평가는 감정적인 요인보다는 인지적인 사고 과정의 결과로서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전반적으로(life as a whole) 판단한 결과를 의미한다. 이는 한 개인이 구성한 수준(standard)을 근거로 자신이 처한 여러 상황들을 비교하는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Pavot et al., 1991). 여기서 개인의 판단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휴리스틱(heuristic)을 통해서 나온 결과인지에 대한 학술적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sup>3)</sup>

삶에 대한 평가는 개인이 판단의 근거를 토대로 여러 선택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는 행위를 분석한다는 의미에서 전통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효용(utility)과 매우 흡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인간이 결정하는 선택은 매 순간 경험하는 행위와 관련

2)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Subjective well-being refers to all of the various types of evaluations, both positive and negative, that people make of their lives. It includes reflective cognitive evaluations, such as life satisfaction and work satisfaction, interest and engagement, and affective reactions to life events, such as joy and sadness.

3) 휴리스틱(heuristic)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시간이나 정보가 불충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굳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사용하는 어림짐작의 기술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는 Tversky & Kahneman(1973, 1974)을 참조하기 바란다.

된 화폐적 효용의 총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람들이 인생을 평가하는 방법은 매 순간 실제로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혹은 기쁨과 고통의 감정의 연속적 흐름(a continuous hedonic flow of pleasure or pain; Jeremy Bentham)을 토대로 하기보다는(experienced utility) 자신들의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를 기억 혹은 결정 효용(remembered or decision utility)이라고 정의한다.<sup>4)</sup>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삶에 대한 평가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다(life as a whole or global judgements of life as a whole). 그러나 삶에 어느 한 부분에 대한 평가, 예를 들어 직장 혹은 건강 등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평가(global judgement of life)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International Wellbeing Group(2006)의 연구에서는 삶에 대한 평가를 8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동일하게 가중 평균하여 구한 인덱스인 Personal Wellbeing Index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Van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독일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삶에 대한 평가를 6가지 영역 (직업만족도, 재정만족도, 거주만족도, 건강만족도, 여가만족도와 환경만족도)의 합수로 추정하였다. 이런 영역별 삶에 만족도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실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 목표를 두기 때문이며, 정책을 입안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 2. 감정(Affect)

감정(affect)이라는 요소는 사람들의 느낌을 기술하는 데 있어 심리학자들이 사용해 온 단어이며, 어느 한 시점에서의 느낌(feelings) 혹은 감정상태(emotional states)를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감정이라는 요소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보다는 삶을 통해 경험하는 것을 측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앞에서 살펴본 삶에 대한 평가는 하나의 지수로 측정될 수 있으나, 감정이라는 요소는 크게 좋은 감정(positive affect)과 나쁜 감정(negative affect)으로 구분된다(Kahneman et al., 1999).<sup>5)</sup> 좋은 감정에는 행복, 기쁨 그리

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Kahneman & Krueger(2006)을 참조하기 바란다. 기억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측정방법은 이후 서술하는 감정 부분과 경험적 웰빙(experienced well-being) 지표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5) Kahneman과 Seligman 등은 hedonic psychology 분야에서 주요 업적을 남겼다. 일반 독자를 위한 이 분야 개관을 담은 New York Times(2011)의 기사 “A New Gauge to See What's Beyond Happiness”를 참조하시오. Kahneman et al.(1999)의 연구는 이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고 만족감 등이 포함되며, 나쁜 감정에는 슬픔, 분노, 두려움 그리고 걱정 등이 포함된다. 좋은 감정의 요소들은 서로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일 지수로 측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으나, 나쁜 감정은 각 요소 간 상이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기에 보다 다면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sup>6)</sup> 그러나 사람들은 어느 특정 시점에서 이런 두 가지 부류의 감정들, 즉 긍정적/부정적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Kahneman & Krueger, 2006).

감정의 요소는 앞에서 살펴본 삶에 대한 평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그 이유는 어느 시점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요소는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서 조사되기 때문이다. 감정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ESM(Experience Sampling Method) 방법에서는 어느 조사 기간 동안 (하루 혹은 며칠 동안) 응답자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들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ESM 방법이 연구자에게 응답자의 감정 요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실제 실행하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DRM(Day Reconstruction Method)에서는 응답자가 하루 동안 자신이 사용한 시간 분배를 일기 형식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이 방법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ESM 방법과 상당히 근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Kahneman & Krueger, 2006).

### 3. 유데모니아(Eudaimonia)

최근에 심리학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있는 positive psychology에서 강조하는 요소인 ‘유데모니아’의 어원은 원래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개념이다. 이 단어는 현재 행복(happiness), 후생(welfare)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심리적 번영(psychological flourishing)으로도 사용되는 추세다.<sup>7)</sup>

그러나 최근 주관적 웰빙에 대한 심리학적 설문조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웰빙이라는 개념을 단순한 결과가 아닌 기능적인 요소(functioning element)의 측면들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Huppert et al.(2009)의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라는 관점에서 유데모니아적 웰빙(eudaimonic well-being)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있다.

6)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 대해 개인이 분노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으나 슬프지는 않을 수 있다.

7) 이 개념에 대한 간략한 논의는 앞에서 언급했던 New York Times(2011)를 참조하기 바란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지식 습득에 대한 관심, 목표지향성과 목적성, 사회적 참여와 남을 돌보는 이타심 등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요인들, 즉 삶의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행복학(happiology) 그리고 감정요인을 주로 다루는 쾌락적 심리학(hedonic psychology)의 한계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로서 유데모니아를 또 하나의 주관적 웰빙의 요소로 다루고 있다.

유데모니아에 대한 여러 학문적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삶에 대한 평가 혹은 감정요인들을 통해서 측정되지 못하는 다른 측면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주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아이를 가지고 이를 돌보는 과정들은 개인의 행복도를 낮추는 경향이 있으나, 부모는 이런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부모의 행복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Brooks, 2008).

### Ⅲ. 주관적 웰빙의 측정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이후 국내 노동패널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들에 큰 영향을 미친 OECD(2013)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6가지 영역을 기초로 하는 모듈(modules)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는 앞에서 살펴본 삶에 대한 평가, 감정 그리고 유데모니아의 3 가지 영역도 물론 포함된다. OECD에서 권장하는 여섯 가지 설문 영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고자 한다.

- (1) 핵심지표(Core measures)
- (2) 삶에 대한 평가(Life evaluation)
- (3) 감정(Affect)
- (4) 유데모니아적 웰빙(Eudaimonic well-being)
- (5) 영역 평가(Domain evaluation)
- (6) 경험적 웰빙(Experienced well-being)

## 1) 핵심지표에 관하여

핵심지표는 국가 간 혹은 시대별로 주관적 웰빙을 비교하려는 목적으로 고안되었으며 가장 기초적인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다. 핵심지표에는 총 다섯 가지의 설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삶에 대한 평가(1문항), 유데모니아(1문항) 그리고 감정(3문항) 등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다섯 가지 항목들 가운데 삶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primary) 부분을 차지하며 다른 4문항의 설문은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고안되었다. 특히 유데모니아 항목의 포함은 다소 실험적인(experimental) 시도를 반영하고 있다.<sup>8)</sup> 감정 항목의 경우 긍정적 요인들은 서로 상관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1문항만 고려하였고 부정적 요인들의 경우 보다 다양한 관계성이 존재하기에 대표적인 2문항을 넣었다.

각 항목을 측정하는데 Cantril Ladder 와 Satisfaction with Life(SWL)의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되는데 OECD(2013)의 경우 Cantril Ladder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Cantril Ladder 방법은 설문에서 응답자에게 물어보는 설문의 응답 결과가 개인적인 감정요인으로 인한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질문자는 설문에 앞서 응답자에게 ‘사다리(Ladder)’라는 것을 상징하고 가장 위에 있는 것을 설문 내용에 대한 최고의 긍정(동의) 표시로 그리고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을 부인(부정)의 표시로 개념을 설명한다. 측정 수준은 보통 0(사다리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서 10(사다리에서 가장 높은 단계)까지로 측정된다.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에 대한 내용은 삶에 대한 평가지표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핵심지표 설문문항은 아래 다섯 가지 종류다.

A1. 최근 들어,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Overall, how satisfied are you with life as a whole these days?

A2. 전반적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느끼십니까?

Overall, to what extent do you feel things you do in your life are worthwhile?

아래 설문 내용은 응답자가 ‘어제’ 느낀 감정을 토대로 작성하도록 한다.

8) 여기서 실험적(experimental)이라는 의미는 삶에 대한 평가의 경우 Cantril Ladder 혹은 SWLS(Satisfaction With Life Scale;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뒤에서 다루고 있다)를 통한 다양한 신뢰성(reliability)과 타당성(validity)이 축적된 반면에 유데모니아(eudaimonia) 설문의 경우 통합된 이론(overarching theory)에 기초한 검증과정이 다소 충분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A3. 행복에 대해서는?

How about happy?

A4. 걱정에 대해서는?

How about worried?

A5. 우울함에 대해서는?

How about depressed?

## 2) 삶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삶에 대한 평가는 핵심지표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더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삶에 대한 만족도 측정을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총 9개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 두 질문은 삶에 대한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 번째 질문(B1)은 전반적 삶의 만족도를 Cantril Ladder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두 번째 질문(B2)은 전반적 행복도(overall happiness)와 관련이 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각각의 설문 결과를 사용하는 것보다 설명변수의 활용도가 더 유용하다는 연구가 있다(Helliwell et al., 2012). 삶의 만족도 측정과 행복도 측정에 대한 논쟁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행복이라는 개념은 효과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반면에 삶의 만족도 질문은 좀 더 쉽게 이해되는 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있다 (Veenhoven, 2008). 그러나 실제 질문에 답하는 응답자들에게는 행복이라는 설문이 삶의 만족도보다는 쉽게 이해되는 것이 사실이다. 삶에 대한 평가에 관한 질문은 아래와 같이 시작한다.

B1. 본인은 현재 사다리의 몇 번째 계단에 서 있다고 느끼십니까?

On which step of the ladder would you say you personally feel you stand at this time?

여기서 0은 계단의 바닥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삶의 가장 최악의 상태를 의미한다. 반대로 10은 계단의 맨 꼭대기를 의미하며 이는 당신의 삶이 가장 최고의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B2.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Taking all things together, how happy would you say you are?

측정 범위 0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것이며(not all happy), 10은 매우 행복함을 의미한다(completely happy).

다음의 두 질문은 과거와 미래라는 시점을 통하여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을 측정하고 있다. 특히 미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 내용은 Gallup Organization(2012)에서 고안된 Gallup Healthways Well-being Index(현재 만족도와 미래 만족도의 가중평균을 사용)를 사용한 것이다.

B3. 5년 전 당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Overall, how satisfied with your life were you 5 years ago?

B4. 5년 후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할 것이라 예측하십니까?

As your best guess, overall how satisfied with your life do you expect to feel in 5 years time?

다음 다섯 가지 설문들은 소위 삶의 만족도(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측정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Diener et al., 1985; Pavot & Diener, 1993). 이 방법은 특히 심리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설문에 대한 개인의 이질적인 이해도를 통제하는 데 가장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통용되어 왔다.

아래 다섯 가지 설문들에 대한 답은 1(전혀 동의하지 않음, strongly disagree)에서 7(매우 동의함, strongly agree)로 측정된다.

B5. 나의 삶은 대부분 나의 이상과 가깝다.

In most ways my life is close to my ideal

B6. 내 삶의 조건들은 훌륭하다.

The conditions of my life is excellent

B7. 나의 삶에 만족한다.

I am satisfied with my life

B8.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원하던 중요한 것들을 이루었다.

So far I have gotten the important things I want in life

B9. 내가 삶을 다시 산다면,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If I could live my life over, I would change almost nothing

### 3) 감정에 관하여

감정에 관한 설문도 국가와 연구기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결과를 측정하는 범위도 0-10점, 1-6점 혹은 1-4점으로 매우 상이하다.<sup>9)</sup> 본 논문에서는 감정에 대한 가장 폭넓은 지표를 체계적으로 포함하고 다수의 국가를 다년간 분석한 유럽 가구조사인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EQLS)의 예를 가지고 설명해 보고자 한다. EQLS 조사는 2003년도에 시작하여 2007년, 2012년 그리고 2016년 매 4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 국가는 조사 연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2016년 기준으로 28 개 회원국가와 5개 후보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다(Eurofound, 2016).

감정에 관한 설문 내용도 조사 연도마다 수정을 거쳐 2012년도부터는 5개의 긍정적 감정(positive affect)과 3개의 부정적 감정(negative affect)의 설문 분야를 구축하였다.<sup>10)</sup> 2016년도 기준으로 긍정적 감정 문항은 질문 51번(Q51) 그리고 부정적 감정 문항은 질문 52번(Q52)을 참조하면 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Q51 (긍정적 감정) 지난 이주일 동안, 당신이 아래 감정들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답하십시오. 응답은 1(항상)부터 6(한 번도 아님)점으로 표시하였다.<sup>11)</sup>

9) 감정을 측정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자료에 따라 상이한데 설문조사 전일을 기준으로 하는 조사도 있고 지난 4주간의 활동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다. 여기서 고려 기간이 길어지면 응답자의 회고 편향(recall-bias)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기도 한다.

10) 2003년도에는 이 문항이 없었으며, 2007년도에는 긍정적 감정 문항 5개만 포함하였다.

11) 영어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Please indicate for each of the five statements which is the closest to how you have been feeling over the last two weeks. 1-all of the time, 2-most of the time, 3-More than half of the time, 4-less than half of the time, 5-some of the time, 6-at no time.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 52도 동일한 내용이다.

- (1) 나는 기분이 좋은 상태를 느꼈다.

I have felt cheerful and in good spirits

- (2) 나는 안정되고 평안한 상태를 느꼈다.

I have felt calm and relaxed

- (3) 나는 활동적이고 활발함을 느꼈다.

I have felt active and vigorous.

- (4) 나는 잠에서 깨어날 때, 신선하고 개운함을 느꼈다.

I woke up feeling fresh and rested.

- (5) 나의 일상은 나를 흥미롭게 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

My daily life has been filled with things that interest me.

Q52 (부정적 감정) 지난 이주일 동안, 당신이 아래 감정들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답하십시오.

- (1) 나는 특별히 긴장감을 느꼈다.

I have felt particularly tense.

- (2) 나는 외롭다고 느꼈다.

I have felt lonely.

- (3) 나는 낙심하고 우울함을 느꼈다.

I have felt downhearted and depressed.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긍정적 감정들의 경우는 서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부정적 감정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EQLS에서는 긍정적 감정을 물어보는 설문 문항이 부정적 감정의 설문 문항보다 많다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OECD(2013)에서 제시한 총 열 가지 감정에 관한 설문에서 네 가지가 긍정적 감정(기쁨, 안정감, 행복 그리고 웃음)인 반면에 부정적 설문은 여섯 가지(걱정, 슬픔, 우울함, 분노, 스트레스 그리고 피곤함)를 선택하였다.

- 4) 유데모니아적 웰빙에 관하여

유데모니아적 웰빙 측정에 대해서는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실험적(experimental)인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삶에 대한 평가처럼 하나의 인덱스(a single index)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감정에 대한 요인처럼 다면적인 개념(multi-dimensional concept)인지조차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계속 진행 중이다.

여기서는 Waterman et al(2010)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설문 문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유테모니아적 웰빙(EWB; Eudaimonic Well-Being)’은 개인의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발휘되는 개인 잠재력의 발전과정에 도출된 일종의 삶의 질로 정의된다(Sheldon, 2002).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영역이 제시되었다. (1) 자기발견(self-discovery), (2) 인지된 자신의 최대 잠재력의 개발(perceived development of one’s best potentials), (3) 삶의 목적과 의미(a sense of purpose and meaning in life), (4) 활동(취미 등등)들에 대한 적극적 참여도(intense involvement in activities), (5) 상당한 노력의 투자(investment of significant effort), (6) 개인이 활동하는 행위로부터 오는 기쁨(enjoyment of activities as personally expressive). 이 여섯 가지 영역에 대한 대표적인 설문 문항 등을 아래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1) 나의 존재를 진정으로 무엇인지 발견하였다고 나는 믿는다.

I believe I have discovered who I really am.

- (2)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알며, 필요한 경우 이를 개발하려 노력한다고 믿는다.

I believe I know what my best potentials are and I try to develop them whenever possible.

- (3)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였다고 나는 말할 수 있다.

I can say that I have found my purpose in life.

- (4)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나는 기분이 최고다.

I feel best when I am doing something worth investing a great deal of effort in.

- (5) 내가 매일 하는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I find I get intensely involved in many of the things I do each day.

- (6) 내가 하는 것들을 즐기는 것이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It is more important that I really enjoy what I do that others are impressed by it.

## 5) 영역평가에 관하여

전반적인 삶의 대한 평가와 더불어 다양한 삶의 영역(domains), 예를 들어 삶의 수준 혹은 건강상태들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런 정보는 여러 목적, 특히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Dolan & White, 2007).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SWLS와는 대비되게 영역평가는 삶의 서로 다른 측면들을 독립적인 관점에서 측정하고자 한다. 영역평가를 이용한 주관적 웰빙 측정을 종종 주관적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International Wellbeing Group, 2013). 때로는 삶의 객관적인 영역을 다루고자 하는 경제학 분야에서 삶의 질 혹은 행복이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한다.

영역평가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양한 영역들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이다.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기준은 각 영역들은 삶의 모든 구체적 부분들을 독립적으로 의미 있게(independently and meaningfully) 측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합의된 구체적 영역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연구자들의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영역들이 선택되고 분석되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국가기관 혹은 연구기관에서 사용된 영역평가 가운데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개인웰빙지수(PWI; Personal Wellbeing Index)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sup>12)</sup> International Wellbeing Group(2013)에서 개발한 이 지수에는 총 7개의 필수 항목과 선택적 항목 2개가 사용되었다. 7개의 필수 항목과 이에 대한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
2. 건강(health)
3. 삶의 성취도(achievement in life)
4. 개인적 관계성(personal relationships)
5. 안정성(safety)
6. 지역사회 관여도(community connectedness)
7. 미래에 대한 안정성(future safety)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모든 설문 항목은 0-10점수의 범위에서 응답자는 답변한다.

12) 기타 연구에서 사용된 영역평가와의 비교는 OECD(2013)를 참조하시오. OECD(2013)의 경우 다소 많은 총 열 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 내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How satisfied are you with.....?”

1. your standard of living? 본인은 생활수준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2. your health? 본인의 건강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3. what you are achieving in life? 본인의 삶에서 이룩하고 계신 것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4. your personal relationships? 본인의 개인적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5. how safe you feel? 본인이 느끼는 안정성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6. feeling part of your community? 본인은 지역사회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sup>13)</sup>
7. your future security? 본인은 미래 안정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과거에는 포함되었던 종교에 대한 문항은 선택 사항이 되었으며 일곱 가지 영역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 비교를 위하여 전반적 삶의 만족도 설문을 선택적으로 포함하기도 한다.<sup>14)</sup> 다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일자리와 소득, 교육수준과 거주문제 등 보다 객관적인 영역을 다루기도 한다. 이런 경우 주로 경제학적 차원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며 주로 국가 간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Better Life Index, OECD).

#### 6) 경험적 웰빙에 관하여

경험적 웰빙을 측정하는 것은 실제 개인이 여러 활동들에서 경험한(experienced) 감정 혹은 느낌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이 부분은 앞에서 살펴본 감정 항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이를 측정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이 사용된다. 먼저 휴대용 기구를 통해서 개인이 느끼는 쾌락(pleasure)과 고통(pain)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Experience

13) 본 설문 문항은 자신이 속한 사회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기보다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참여하며 이로 인한 사회의 소속감 혹은 유대감(connectedness)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는 것이다.

14) 설문 문항은 “당신이 처한 환경들과 삶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본 설문 문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inking about your own life and personal circumstances,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life as a whole?”

Sampling Method(ESM) 방법이 있다(Csikszentmihalyi, 1990).<sup>15)</sup> 응답자는 보통 하루 혹은 며칠 동안 휴대용 기대를 통하여 자신이 행하는 다양한 활동과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 인지를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그것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관적 감정들(긍정적 혹은 부정적 그리고 그 감정들의 강도 포함)의 기록을 남기게 된다. 인간의 신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계통의 물질과 감정의 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의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ESM 방법은 분석 표본이 큰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관계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다. 이런 대안으로 Kahneman et al.(2004)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일기를 이용한 Day Reconstruction Method (DRM)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는 주로 생활시간조사(TUS; Time Use Survey)에서 활용되며 응답자는 조사일 하루 전에 자신에게 발생한 모든 사건들(epsodes)에 대한 기록을 남기도록 교육받는다. 응답자는 사건들이 시작하고 종료된 시점,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그들이 느낀 감정들(행복감, 기쁨, 피곤함, 걱정, 분노 등등)과 그 감정들의 강도(intensity)를 기록에 남긴다.

Kahneman & Krueger(2006)의 연구에서는 DRM 방법에서 측정된 감정(예를 들어 피곤함)의 시간당 측정결과와 ESM 방법의 결과가 대동소이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효율성과 사용의 용이함이라는 장점으로 DRM 방법이 생활시간조사를 통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Kahneman & Krueger(2006)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웰빙의 다른 지표인 U-index(여기서 'U'는 unpleasant 혹은 undesirable 을 의미한다)를 고안하였다. U-index는 개인이 불쾌하거나 불편한 상태에서 어떤 일에 보낸 시간의 비율을 측정하여 이를 개인의 서수적 감정지표(ordinal measures at the level of feelings)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Kahneman & Krueger(2006)를 참고하기 바란다. 설문문항은 앞의 감정 분야의 것들과 상당부분 중복될 수 있다.

Krueger 등이 참여하여 설계한 2006년도 미국생활시간조사(ATUS: American Time Use Survey)를 기초로 경험적 웰빙 설문 문항을 살펴보고자 한다.<sup>16)</sup> 여기에는 행복감(happy), 슬픔(sad), 피곤함(tired), 고통(pain) 그리고 스트레스(stressed) 등 총 다섯 가지 감정들의 느낀 정도를(0부터 6점 척도) 물어보고 있으며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15) 때로는 Ecological Sampling Method(ESM)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된다(Stone & Shiffman, 1994).

16) 여기서 살펴본 설문 문항은 원래 2006년도 Princeton Affect and Time Survey (PATS)에서 고안된 것이다.



이번 시간 동안 얼마나 행복(슬픔, 피곤함, 고통, 스트레스)을 느끼셨습니까?  
 how happy (sad, tired, pain, stressed) did you feel during this time?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데 있어 신뢰성(reliability)과 타당성(validity)의 문제가 늘 제기된다. 신뢰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관적 웰빙의 측정과 관련해서 정확성(accuracy)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설문조사의 문항들이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지가 신뢰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신뢰성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동일 응답자에게 동일한 설문 문항을 일정 기간 이후 다시 물어보고 그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test-retest reliability). 이 결과는 물어보는 설문 문항의 개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삶에 대한 평가의 경우 한 가지 설문문항을 사용한 경우 2주 이내 동일 질문에 대한 측정결과의 상관계수는 0.5-0.7 수준으로 측정되었다(Krueger & Schkade, 2008). 반면에 2개 이상 설문 문항들을 이용하여 가중 평균한 삶의 만족도 지수의 상관계수는 0.83-0.84 수준으로 높게 나왔다. 물론 최초 설문 이후 재설문 시점이 길어질수록 두 설문 간 응답 결과의 상관계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rueger & Schkade, 2008). 타당성의 개념은 설문 문항들이 주관적 웰빙의 의미를 정확히 측정하는지와 관련이 있다(whether it measures the right thing). 따라서 타당성 측정에 대한 합의된 방법은 아직 학계에서 확고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현재까지 개발된 다양한 설문들 가운데 연구자의 연구 목적과 부합되는 것들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 IV. 행복의 결정요인

개인의 행복 혹은 주관적 웰빙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며 이를 일관성 있게 분류하기는 매우 힘들다. 행복연구를 다루는 분야(심리학, 사회학 혹은 경제학)에 따라 그것을 정하는 기준도 상이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주관적 웰빙의 차이를 여섯 가지 그룹으로 분류한 Diener et al.(1999)의 연구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이 여섯 가지 그룹은 (1) 개인적 속성들(personal factors), (2) 상황적 요인들(contextual and situational factors), (3) 인구학적 요인들(demographic factors), (4) 제도적 요인들

(institutional factors), (5) 환경적 요인들(environmental factors) 그리고 (6) 경제적 요인들(economic factors)로 규정된다. 개인적 속성들에는 개인의 유전적 요인과 성격과 관련된 변수들이 포함되며 상황적 요인들에는 건강, 결혼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인구학적 그룹에는 나이와 성별과 같은 요인들이 고려되며 제도적 요인들에는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 혹은 개인의 자유보장 정도 등이 포함된다. 환경적 요인에는 최근 이슈가 되는 지구 온난화 등이 포함되며 경제적 요인들에는 소득과 실업 그리고 물가수준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들 가운데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요소인 (상대)소득과 실업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연구에 대한 요약을 하고자 한다.

## 1. 소득과 행복도와의 관계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연구는 소위 'Easterlin Paradox'라 불리는 Easterlin(1974)에서 시작되었으며, 소득과 행복수준과의 관계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 (1) 일정시점 한 국가 내에서는 소득과 행복도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 (2) 한 시점에서 국가 간 비교에 있어 소득의 차이와 행복도 차이와의 관계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 (3) 시계열 분석에 의하면 일인당 국민소득과 행복도 사이의 상관관계는 불분명하다.

### (1)번 연구와 관련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자신들이 원하는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고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위 '효용(utility)'을 증가시킨다. 어느 한 시점 그리고 한 국가를 대상으로 부와 행복도의 관계를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Di Tella et al.(2001)과 Easterlin(2001)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영국의 경우는 Blanchflower & Oswald(2000)의 연구를 참조하면 된다. 스위스의 경우는 Frey & Stutzer(2000)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소득의 증가는 개인의 행복도를 증가시키나 그 증가 속도는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다(Diener et al., 1993).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데 소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나 그 외적인 요인도 상당히 존재하며 소득과 행복도와 인과관계성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Gardner & Oswald(2001)의 연구에서는 복권에 당첨되었

거나,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경우 개인의 행복수준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득과 행복의 인과성을 주장하고 있다.

### (2)번 연구와 관련해서

국가 간 행복도의 차이는 소득의 차이에서 발생하기보다는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 남녀 간 평등의 정도, 혹은 인권에 대한 존중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다(Easterly, 1999). 국민의 소득수준이 행복도에 미치는 인과관계(causality)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적 인과관계(inverse causality)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 연구가 있다(Kenny, 1999). 이 연구에 의하면 현재 자신의 삶에 보다 만족한 사람들은 보다 높은 열정을 가지고 일에 충실하여 더 높은 소득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소위 ‘적응(adaptation)’ 이라고 하는 가설에서는 인간은 현재 시점에서 절대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과거의 행복 정도를 기초해서 미래 행복에 대한 예측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소득증대는 항구적인 행복도를 크게 증가시키지 못하며 행복도의 증가는 물질적 쾌락(hedonic)보다는 미래에 대한 갈망(aspiration)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Easterlin, 2001). 미래에 대한 열정 혹은 갈망이 행복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며 소득증대는 중간 단계의 결과물로 여기고 있다고 이 이론은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부유한 국가에서의 추가적인 소득증대가 사람들의 행복도를 더 이상 증가시키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3)번 연구와 관련해서

소득과 행복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횡단면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점(각 국가의 보이지 않는 시간불변 특성)을 고려하여 패널분석을 시도한 연구(Helliwell, 2011)가 주목을 받았다. 이 연구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 49개 나라를 종합한 패널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일인당 국민소득의 증가가 국민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일인당 국민소득 10% 증가는 행복도 지수 0.0003(10점이 최고 만족) 만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실업과 행복도와의 관계

서로 다른 국가 혹은 어느 시점과 관계없이 개인이 실업을 겪는 경우 그 사람의 행

복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다(Clark & Oswald, 1994; Winkelmann & Winkelmann, 1998). 이런 연구들에서는 실업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통제하고 나서도 실업 그 자체로 인해 사람들의 행복도가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상대적으로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인지하는 사람들이 보다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이로 인해 직장을 잃을 위험에 덜 직면하는 역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패널 자료를 통해서 이런 요인들을 통제해도 여전히 실업은 사람들의 행복도를 감소하는 것임을 기존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실업과 더불어 사회 전체의 실업의 정도가 개인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도 진행되었다(Clark, 2000). 이 연구는 개인의 행복도는 다른 사람이 처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에 기인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실업이라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한 현실이 자신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동일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인식하면 행복도의 감소폭은 덜해 진다는 것이다. Clark(2000)의 연구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더 많은 사람들이 실업에 처해 있는 경우 자신의 행복도의 감소폭도 둔화되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3. 상대적·사회적 지위와 행복과의 관계

앞에서 살펴본 소득과 행복과의 관계, 즉 Easterlin Paradox를 설명하려는 시도 가운데 주목받는 분야는 비교효용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 혹은 효용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속한 직장, 업종 혹은 가족 더 나아가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소득수준이 자신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최근 연구되고 있는 소위 ‘상대소득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벌고 있는 소득의 절대금액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소득수준을 비교하여 소비수준을 결정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상대적 소득이 개인의 행복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Frank, 1999; Clark & Oswald, 1996). 이 연구들에 따르면 자신들이 기준으로 삼는 그룹의 소득이 증가하면 자신의 행복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개인의 행복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분석 국가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 경우 소

득불평등의 심화는 국민의 행복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의 경우는 그런 현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Alesina et al., 2001).

## V. 결 론

경제학에서 분석하는 효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앞에서 살펴본 주관적 웰빙 개념의 요소 가운데 삶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삶의 만족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행복의 개념은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효용이라는 개념보다는 보다 폭넓은 것이며 개인의 주관적 웰빙과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행복과 주관적 웰빙을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삶의 질이라는 개념은 경제학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주관적 웰빙, 행복, 삶의 질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간략한 비교 설명은 Diener(2006)을 참조하기 바란다.

국내에서도 심리학이나 사회학 등 다른 사회과학 분야는 제외하더라도 경제학 분야에서 행복에 관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일과 행복>은 노동경제학 측면에서 행복의 결정요인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특히 개인이 속한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며, 일자리와 관련된 행복 연구에 대한 다수의 국내 참고문헌을 담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패널 자료인 한국노동패널(KLIPS) 제18차 조사(2015년)에서 다양한 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해 ‘삶의 인식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부가조사는 앞에서 상세히 언급했던 OECD가 제시한 지침을 상당히 따르고 있으며,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통해서 노동시장 분야에서 행복과 관련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들어 많은 국제기관 혹은 개별 국가 연구기관에서 삶의 질 혹은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소득이나 고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OECD(2011)의 Better Life Index 지표에서도 개인의 소득과 고용을 중요한 핵심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총 11개 지표 가운데 고용 혹은 노동과 관련된 영역은 물질적 생활조건 부분의 일자리와 소득 영역이며 삶의 질 부문에서는 일가정 양립

(work-life balance) 영역이다. 일자리와 소득 영역의 세부지표에는 고용률, 장기실업률과 1인당 연평균 소득이 포함되며 일가정 양립 영역의 세부지표에는 장시간 노동자, 여가 및 개인시간 그리고 유자녀 여성근로자 수가 포함된다. 이외에도 UN과 ILO 등에서는 고용의 질 혹은 양질의 일자리 지표를 개발하여 각 국가들이 노동시장과 관련된 정책 지표를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학적 연구에서 다소 간과될 수 있는 주관적 웰빙 혹은 행복에 대한 분석적 개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하였다. 최근 많은 국가들에 있어서 국민들의 행복수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는 정부 정책의 주된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행복연구를 하는 목적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 혹은 행복을 증가시키는 데 있다. 한 국가의 행복수준을 통합하는 인덱스의 개발이 요구되는 것이 현 시대적 흐름인 점을 비추어볼 때,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전공과 상관없이 행복 혹은 주관적 웰빙이라는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필요조건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행복연구의 방향은 각 개인의 행복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에 대한 결정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수단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Alesina, Alberto, Rafael Di Tella and Robert MacCulloch “Inequality and Happiness: Are Europeans and Americans Different?” NBER Working Paper No. 8198.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1.
- Blanchflower, David G. and Andrew J. Oswald.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NBER Working Paper No. 7487.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0.
- Brooks, C. *Gross National Happiness*. Basic Books, New York, 2008.
- Clark, Andrew E. “Unemployment as a Social Norm: Psychological Evidence from Panel Data.” Mimeo. University of Orleans, France, 2000.
- Clark, Andrew E. and Andrew J. Oswald “Unhappiness and Unemployment.” *Economic Journal* 104 (424) (April 1994): 648-659.

- Clark, Andrew E. and Andrew J. Oswald “Satisfaction and Comparison Incom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1 (3) (September 1996): 359-381.
- Csikszentmihalyi, Mihaly.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Collins, 1990.
- Di Tella, Rafael, Robert J. MacCulloch and Andrew J. Oswald. “Preferences over Inflation and Unemployment: Evidence from Surveys of Happiness.” *American Economic Review* 91 (1) (March 2001): 335-341.
- Diener, Ed. “Guidelines for National Indicators of Subjective Well-Being and I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 (4) (September 2006): 397-404.
- Diener, Ed, Ed Sandvik, Larry Seidlitz and Marissa Diener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Relative or Absolut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8 (3) (March 1993): 195-223.
- Diener, E., R. Emmons, R. Larsen and S. Griffin.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1) (January 1985): 71-75
- Diener, Ed, Eunkook M. Suh, Robert E. Lucas and Heidi L. Smith.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 (February 1999): 276-302.
- Dolan, P. and M. White. “How Can Measures of Subjective Well-being be Used to Inform Polic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2 (1) (March 2007): 71-85.
- Easterlin, Richard A.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Paul A. David and Melvin W. Reder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Moses Abramovitz*. New York/London: Academic Press. (1974): 89-125.
- Easterlin, Richard A. “Income and Happiness: Toward a Unified Theory.” *Economic Journal* 111 (July 2001): 465-484.
- Easterly, William. “Life During Growth.” *Journal of Economic Growth* 4 (3) (September 1999): 239-276.
- Eurofound. 2016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Questionnaire, 2016.
- Frank, Robert H. *Luxury Fever: Why Money Fails to Satisfy in an Era of Excess*. New York: Free Press, 1999.

- Frey, Bruno S. and Alois Stutzer. "Happiness, Economy and Institutions." *Economic Journal* 110 (October 2000): 918-938.
- Gardner, Jonathan and Andrew J. Oswald. "Does Money Buy Happiness? A Longitudinal Study Using Data on Windfalls." Mimeo. Warwick University, 2001.
- Gallup Organization. *Indexes and Questions*. 2012.
- Helliwell, John, "How's Life? Combining Individual and National Variables to Explain Subjective Well-Being." Mimeo.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11.
- Helliwell, J.F., R. Layard and J. Sachs (eds.). *World Happiness Report*. The Earth Institute, Columbia University, 2012.
- Huppert, F.A., N. Marks, A. Clark, J. Siegrist, A. Stutzer, J. Vitterso and M. Wahrendorf "Measuring Well-being Across Europe: Description of the ESS Well-being Module and Preliminary Finding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1 (3) (May 2009): 301-315.
- International Wellbeing Group. *Personal Wellbeing Index*. 4th edition. Melbourne, Australian Centre on Quality of Life, Deakin University, 2006.
- International Wellbeing Group. *Personal Wellbeing Index*, 5th edition. Melbourne, Australian Centre on Quality of Life, Deakin University, 2013.
- Kahneman, D., E. Diener and N. Schwarz.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Russel Sage Foundation, New York, 1999.
- Kahneman, D. and A. Krueger "Developments in the Measurement of Subjective Well-being."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20 (1) (Winter 2006): 3-24.
- Kahneman, Daniel, Alan B. Krueger, David A. Schkade, Norbert Schwarz and Arthur A. Stone. "A Survey Method for Characterizing DailyLife Experience: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Science* 306 (5702) (December 2004): 1776-780.
- Kenny, C. "Does Growth Cause Happiness, or Does Happiness Cause Growth?" *Kyklos* 52 (1) (February 1999): 3-26.
- Krueger, Alan B. and David A. Schkade. "The Reliability of Subjective Well-being Measur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2 (August 2008): 1833-1845.
- New York Times. "A New Gauge to See What's Beyond Happiness." (May 2011).
- OECD.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2013.



- OECD.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2011.
- Pavot, W., E. Diener, C.R. Colvin and E. Sandvik. "Further Validation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Evidence from the cross-method convergence of well-being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7 (1) (September 1991): 149-161.
- Pavot, W. and E. Diener.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 (2) (June 1993): 164-172.
- Sheldon, K.M. "The Self-concordance Model of Healthy Goal Striving: When personal goals correctly represent the person." In E.L. Deci, & R.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65-86.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2002.
- Stone, Arthur and Saul Shiffman.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EMA) in Behavioral Medicine."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16 (January 1994): 199-202.
- Tversky, A., and Kahneman, D. "Availability: A heuristic for judging frequency and probability." *Cognitive Psychology* 5 (September 1973): 207 - 232.
- Tversky, A., and Kahneman, D.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Science* 185 (4157) (September 1974): 1124-1131.
- Van Praag, B.M.S., P. Frijters and A. Ferrer-i-Carbonell "The Anatomy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51 (1) (May 2003) 29-49.
- Veenhoven, R. "The International Scale Interval Study: Improving the Comparability of Responses to Survey Questions about Happiness." In V. Moller and D. Huschka (eds.). *Quality of Life and the Millennium Challenge: Advances in Quality-of-Life Studies, Theory and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Series, Vol. 35, Springer, (2008): 45-58.
- Waterman, A., Schwartz, S., Zamboanga, B., Rvert, R., Williams, M., Agocha B., Kim, S. and Donnellan., B. "The Questionnaire for Eudaimonic Well-Being: Psychometric Properties, Demographic Comparisons, and Evidence of Validity."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5 (1) (January 2010): 41-61
- Winkelmann, Liliana and Rainer Winkelmann "Why are the Unemployed So Unhappy? Evidence from Panel Data." *Economica* 65 (257) (February 1998): 1-15.

abstract

---

## Analytical Concept of Happiness and Its Measurement

Donghun Cho

This paper reviews the concept of happiness which has begun to be widely used in many fields. The concept of happiness is extensively examined within the analytical concept of subjective well-being. Three components of subjective well-being are clearly summarized in the paper. In addition, related questionnaires measuring those components are provided from the most widely accepted in the study of happiness. The role of two factors such as income and unemployment in determining individuals' happiness is also discussed.

Keywords: subjective well-being, happiness, quality of life